

민선 8기 단체장에 듣는다

“농업에 제조·가공·관광 접목...부자농촌 건설 매진”

이병노 담양군수

“생동감 넘치는 새로운 담양,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1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담양을 강조하며 “담양 구석구석을 살피고 소통하며, 5만 군민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이날 핵심 공약으로 ‘부자농촌’ 건설,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과 호도행정을 통한 ‘향촌복지’ 실현, 첨단산업 유치로 양질의 일자리 육성, 격차 없는 개발로 동반성장하는 경제도시, ‘남도문화 관광도시 담양’ 실현, 군민 자치역량 강화와 행정참여권 보장 등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핵심 공약 중 하나가 ‘부자농촌’ 담양 건설이다. 이에 대한 복안은.”

▲ 현재 20%대에 머물고 있는 1300억원의 농업예산을 30%대로 끌어 올려 1800억원까지 증대하고 농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갔겠다.

위기 극복을 위해 ICT 기술을 접목한 첨단원예단지 조성, 친환경 쌀 재배기술 보급을 통한 생산 기반 확충, 기후변화 대응 고소득 작물 육성, 스마트형 첨단사육 시설 지원 확대, 농촌융복합지원

첨단산업 유치 양질의 일자리 제공 청년 돌아오는 담양 만들 것 야시장 개설·농어촌민박·카라반·펜션 늘려 체류형 관광 활성화

센터 구축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고, 청년세대 정착을 위한 농업사관학교 운영, 딸기 품질 개선을 위한 우량도 공급체계를 구축하겠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을 서둘러 발굴하고, 생태인문정원도시 담양의 이미지를 살려 단순 수확·판매에 머무르는 과거형 농업이 아닌 생산·제조·가공·관광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6차 산업으로 대전환을 이뤄 부자농촌, 젊어진 농촌,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 갈 것이다.

“첨단산업”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 청년이 돌아오는 담양, 젊음이 넘치는 담양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선 미래를 이끌어 갈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다. 후보시절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다. 약 70%의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된다면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속히 제2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견실한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과,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병행하겠다. 드론, 배달로봇,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해 ‘담양형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관내 기존 농공

단지의 혁신을 통해 ‘스마트농공단지’로 탈바꿈시켜 농업분야와 접목한 활성화 전략을 꾀하고, 산업구조의 다변화를 위해 담양의 비교우위 자원인 생태·정원 인프라를 토대로 녹색산업클러스터도 조성하겠다.

“맞춤형 복지, 호도행정을 담은 ‘향촌복지’를 강조하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 담양군 주민복지실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많은 사례를 살펴봤다.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 일은 나라에서도, 대형병원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구수를 넘기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이 시대 우리가 사는 담양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고민했다.

여생을 보내기에 고향만한 곳이 있겠는가. 40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노부모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면서 느낀 점을 토대로 ‘호도행정’을 연구하고, 실현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향촌복지’라 이름을 붙였다.

앞으로는 담양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담양형 통합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먼저 기존 요양원 개선과 네트워크화, 보건소



이전 등을 통해 보다 섬세한 마을별, 권역별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와 더불어 군민과 가장 밀접한 곳인 읍면사무소의 책임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해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주민자치형 행정체계를 구축하겠다.

“남도문화 관광도시 담양” 실현 위한 중요 시책은.

▲ 담양이 가진 경관자원을 활용한 체험·체류형 관광인프라를 조성해 관광의 6차 산업화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수거리, 메타프로방스에 야간테마 관광거리를 조성하고 야시장 개설, 농어촌민박과 카라반, 펜션과 같은 숙박시설의 적극적인 컨설팅을 통해 체류형 관광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담양다운 원림문화 벨트를 조성하고, 읍면지역에 따라 특색 있는 감성요인을 개발해 담양 전역을 감성도시로 조성하겠다. 아울러 남산 생태공원과 주변에 생태전원단지를 조성해 지역이 가진 특색을 담고 한국정원문화원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다.

“군민들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민선 8기 담양군수로 선택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 한 사람이 걷는 백 걸음보다 백 명이 걷는 한 걸음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느리더라도 군민과 동행하는 군정을 펼치겠다.

오직 군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고 공직생활 40년에 얻은 경험과 지혜, 담양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쏟겠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친구와 수다 떨며 공짜 커피 마시세요

담양군문화재단 ‘수다인 가배’

31일까지 300명 대상으로 진행

“당신의 이야기가 커피 한잔이 됩니다.” 담양군문화재단은 지역 카페 공간에서 지역민과 관광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담양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수다인(人)가배’ 사업을 진행한다.

수다가배는 지역 카페 및 시민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담양 지역민 또는 관광객이 바라본 담양의 이미지, 문화도시에 대한 의견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담론 카드를 작성하면 카페에서 음료와 교환할 수 있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31일까지 지역민과 관광객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참여 카페는 담양 ‘디프커피’, ‘세모(세상의 모든 주스)’, ‘읍내커피’ 총 3곳이다.

수다가배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담양 문화도시의 시범사업 중 하나로 2023년 법정 문화도시 지정 후 담양 지역 카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문화도시추진단은 카페가 지역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참여 구



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담양군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거나 담양문화도시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담양군 농특산물 판매몰 ‘담양장터’ 앱 출시

15일까지 20% 할인쿠폰 이벤트

담양군은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몰 ‘담양장터’(www.damyangmk.kr)를 더욱 쉽게 만나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출시했다고 최근 밝혔다.

‘담양장터’ 앱은 이날부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및 IOS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담양군에서는 앱 설치 회원에게 전 품목 20% 할인쿠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15일까지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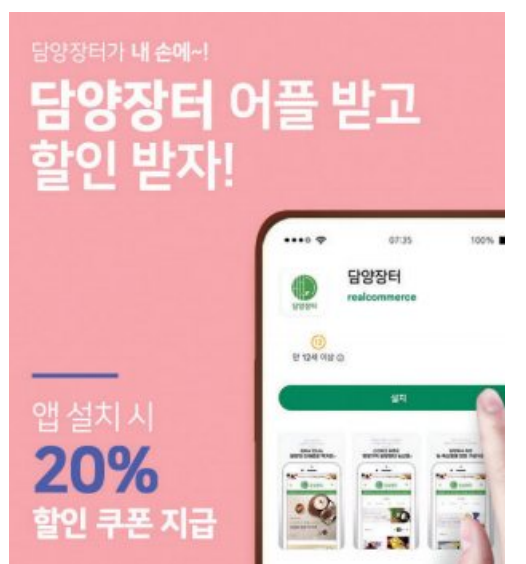
또한, 앱에서 주문은 물론 결제도 가능하며,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간편히 받아볼 수 있어 비대면 온라인 유통 트렌드에 적합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장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600여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숲맑은 담양쌀과 전통한과, 주류, 장류를 비롯해 다양한 소비층을 겨냥한 치즈돈가스, 쌀파스타, 요거트, 건강보조식품 등 여러 담양산 식품을 한자리에 만나볼 수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담양장터 앱 개발 및 출시를 기념해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품질 높은 담양의 농특산물을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는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담양군 15일까지 ‘벼 병해충 방제 기간’ 운영

장마 이후 적기 방제 당부

담양군은 장마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의 지속으로 벼 병해충 발생량이 증가해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15일까지 ‘벼 병해충 기본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인에게 적기에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제대상은 밀가루, 먹노린재, 흑명나방, 이삭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등이며 이들 병해충에 대해 발생초기에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수확량 감소와 품질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예찰 결과 잎도열병이 발생이 증가하고 이를 방지 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진전돼 피해가 예

상되므로 벼 이삭이 패기 시작할 때 비래해충(밀구류, 흑명나방) 등과 같이 방제해줄 것을 권한다.

이철규 담양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장마철 이후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될 때 벼 병해충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방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친환경경제배단지는 친환경제제를 사용하여 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